

안녕하십니까?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지난해는 메르스로 인해 여러 달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 오가는 소통과 합심으로 이겨내보자는 온 국민의 의지가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안을 겪으며 우리 한민족의 저력과 힘을 거듭 확인합니다. 개인의 안위(安危)보다 나라와 겨레를 우선하는 마음이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고 여기며 안도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를 슬프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포했던 충격은 무겁게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 눌렀습니다.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건들 또한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마침 좋은 생각을 편한 글로 전해주는 『스승과 제자, 함께 걷다』를 읽어보고는 설 선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해. 세상은 골짜기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고, 내가 만물을 잊어버리면 만물도 나를 잊게 되지. 내가 이해득실 따라 사람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제 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국민 각자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일깨워주는 스승님이 한 분씩 계시고 모두가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받아 실천한다면, 정치·경제·문화·교육을 가릴 것 없이 어느 한 곳이라도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고 빛과 향기를 더해주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다시금 깊게 성찰하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다짐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되어보자!’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좋은 꿈을 꾸고 밝은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종단 또한 안으로는 성찰하고 변화하는 고삐를 확실하게 조이고, 바깥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丙申年 설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